

# 홍남철수작전의 재구성: 아비규환과 질서정연사의 진실 재조명

조진수 · 김석향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요약

소설 〈홍남철수〉, 영화 〈국제시장〉, 홍남철수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국내 대중매체나 역사문헌 속에서 홍남철수 당시 피란민 집단은 빈번한 전선의 이동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맹목적이고 질서 없이 움직이던 객체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은 홍남철수를 총지휘한 미국군의 역사문헌과 국내 역사문헌 속 거시적 서술 뿐 아니라 피란민의 구술증언에 나타나는 미시적 서술을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당시 피란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홍남철수 작전에 동참했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홍남철수작전을 통해 남하한 피란민 개인은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UN군과 한국군이 북한지역에서 철수하게 되자 홍남을 비롯한 함경도 동해안 일대는 소형목선으로 북한을 빠져나가려는 피란민들로 아비규환이었다. 홍남철수작전(1950년 12월8일-24일) 중반기에 피란민도 군 수송선으로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이후 군의 개입 하에 피란민들이 질서를 찾았고 중공군이 홍남항을 포위해 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10만여 명이 질서정연하게 철수하였다.

## 주제어

홍남철수작전, 피란민, 아비규환, 질서정연, 자유

\* 제1저자: 조진수, 교신저자: 김석향

## I. 들어가며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미군을 주력부대로 하는 UN군과 한국군은 북진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지원군(이하 중공군) 개입으로 후퇴한다. 북서부 전선의 미 8군단은 육로로 후퇴했고 북동부 전선의 미 10군단은 원산이 중공군에게 함락을 당해 퇴로가 막혀 홍남항에 병력을 집결하고 해로로 철수했다. 당시 홍남항에는 미 10군단 병력과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이 몰려 있었다.<sup>1</sup> 이 상황에서 병력 105,000명과 98,100명의 피란민을 군 수송선에 태워 홍남항에서 철수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이 바로 홍남철수작전이다(Gilbert, 2015: 132-133).

UN군 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1950년 12월 8일 홍남철수를 명령했다<sup>2</sup>. 작전을 총지휘한 미 10군단장 에드워드 아몬드(Edward M. Almond)는 처음에 홍남으로 몰려드는 피란민을 군 수송선으로 철수시키려 하지 않

---

1 당시 홍남항에 얼마나 많은 피란민이 몰렸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역사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당시 미 제7사단 군속이던 조지연은 홍남항에 몰려든 피란민이 30만여 명 정도 된다고 증언했다(부산일보사, 1984: 223).

2 1950년 12월 8일자 극동군 사령관 작전계획 205호는 홍남철수작전 명령인데 미국 정부에서 비밀 해제했다. Far East Command, General Headquarters, "Operation Plan, CINCFE No.205, 8 December 1950", Confidential, Top Secret, Regraded Unclassified Order Sec Army by Tag per 750364, MacArthur Archives(안재철, 2008: 318-328, 202 재인용).

았다. 그러나 미 10군단 민사부 고문 현봉학 박사<sup>3</sup> 한국군 1군단장 김백일의<sup>4</sup> 설득으로 14일에 피란민 철수를 결정했다(현봉학, 2017: 176; 정일권, 1986: 271-272). 그 후 군대가 피란민 관리를 맡아 12월 24일에 흥남철수작전을 완료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던 흥남철수작전은 2014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 영상을 통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영화 속 흥남철수작전은 미군 수송선에 먼저 타려고 서로 밀치고 싸우는 피란민 모습이 아비규환으로 그려진다. 흥남철수를 다룬 기존의 다큐멘터리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sup>5</sup> 김동리(2005)의 단편소설 〈흥남철수〉에서는 “부두 위는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공포가 발사되고 호각이 깨어지고 동아줄이 쳐지고 하여, 일단 혼란이 멎었으나, 그와 동시, 이번에는 또, 그 혼란 속에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 쌀자루를 떨어뜨린 남편 (...) 부두가 떠내려가려는 듯했다. 그들은 모두 이 배를 타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듯”했다고 흥남철수 장면을 서술해 놓았다(김동리, 2005: 100).

국내 역사문헌에서는 흥남철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흥남철수작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지휘한 것은 미군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지 않은 국내 역사문헌 속에서도 흥남철수 당시 피란민의 모습을 대부분 아비규환으로 묘사하고 있다.

3 현봉학(1922-2007)은 함경북도 성진 출신으로 세브란스 의전 졸업 후 미국 버지니아주립의과대학에서 임상병리학을 공부했다. 1950년 귀국해 세브란스에서 일하는 도중 한국전쟁이 일어나 아몬드 10군단장의 민사부 고문으로 복무했다(현봉학, 2017: 454-456).

4 김백일(1917-1951)은 함경북도 명천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제 1군단장에 보임되어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고 두만강 근처의 청진-혜산진까지 복진했다. 흥남철수작전 당시 아몬드 장군을 설득하여 피란민 10만여 명을 군 수송선에 태워 피난시켰다. 1951년 항공기 사고로 사망했다(신동아, 2017/08: 376-383).

5 “역사채널 e-희망의 크리스마스 항해 흥남철수작전.” <https://www.youtube.com/watch?v=QQ4flyuW3U0&sns=em>(김색일: 2018. 9. 20).

당시 미 10군단은 12월 9일-24일 기간(Appleman, 1990: 343)<sup>6</sup> 동안 피란민 10만여 명과 UN군 10만여 명 이외에 차량 17,500대, 화물 350,000톤 철수를 모두 마쳤다(Gilbert, 2015: 132-133; Weintraub, 2015: 314).<sup>7</sup>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여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철수작전에 따른다 해도 10만여 명의 피란민이 아비규환 상태에서 며칠 동안 배를 이용하여 완전히 철수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흥남철수 당시 빅토리 호 상급 선원 로버트 러니(J. Robert Lunney) 회고문(서울신문, 2017/06/13; Gilbert, 2015:141, 171-172; 안재철, 2008: 731-732)을 보면 강렬해진다.

한국 사람들의 냉철한 극기심과 용감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을 것이다. 배에 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고 있기를 희망하며 배를 탔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피란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승선했고, 거제항에 도착해서는 하나같이 정중하게 한국식으로 절을 하고 내린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소설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같은 대중매체나 국내 역사문헌에서 묘사하는 흥남철수 당시의 피란민 집단은 빈번한 전선의 이동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맹목적이고 질서 없이 움직이는 집단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당시 실제로 피란한 사람의 구술증언과 흥남철수를 총지휘했던 미군의 역사문헌, 국내 역사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시 피란민이 겪었을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흥

6 흥남철수작전 명령은 8일에 내려졌고 성진항에서 9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였다. 흥남항에서는 10일에 철수작전에 돌입하였다(Gilbert, 2015: 132-133). 23일에는 병력과 피란민 철수를 완료하였고 24일에는 흥남항을 폭파시켰다.

7 당시 마지막으로 흥남항을 떠난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 호(Steamship Meredith Victory)이다. 이 배는 미군과 용선계약을 맺고 전락물자를 수송하던 화물선이었는데 동경에서 부산까지 200리터 드럼통에 든 제트기 연료 1만 톤을 운반하려다 흥남철수작전을 도우라는 명령을 받고 흥남항으로 갔다(Gilbert, 2015: 50, 104). 배의 크기는 폭 19m 길이 138m이다(안재철, 2008: 716).

남철수에 동참했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흥남철수 당시 피란민의 모습을 아비규환으로 그리는 일방적 시각을 탈피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과 특성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관련 문헌에 나타나는 자료를 토대로 흥남철수작전의 역사적 사실(史實) 재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심층면담 대상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과 개인의 기억이 교차하는 지점을 재구성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결론과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 II.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과 특성 소개

### 1. 문헌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흥남철수작전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거시적 서술과 피란민 개인의 경험을 드러내는 미시적 서술을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 국내 문헌으로 한국전쟁과 흥남철수 관련 역사문헌, 증언집, 한국군 지휘관 회고록을 참조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육해공군참모총장 정일권,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정보국장 함명수 회고록 등에 관련 증언이 나오기는 하지만 분량이 별로 없고 간접증언이 많다(채한국·정석균·손문식, 1996; 오진근·임성채, 2006; 양영조, 2001; 함명수, 2007; 정일권, 1986; 현봉학, 2017; 문창재, 2010; 부산일보사, 1984; 중앙일보사, 1983). 또한 흥남철수 관련 기사와 국내 다큐멘터리도 살펴보았다.

홍남철수작전은 미군이 총지휘한 작전이므로 피란민 철수 결정 전후의 자세한 기록은 국내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역사문헌과 미군 지휘관 증언, 빅토리 호 선원의 증언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문헌에는 본 연구의 분석시기인 피란민도 홍남철수작전에 동참시키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철수 마지막 날까지 피란민들 상황이 나온다. 피란민을 홍남철수작전에 동참시키는 과정, 동참시킨 이후 이들에 대한 관리정책, 피란민 철수과정, 피란민 모습에 대한 증언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홍남철수작전 후반기에 피란민이 어떤 모습으로 동참했는지 그 상황을 재구성하려고 할 때 미국 문헌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한국전쟁 중군기자 빌 길버트(Gilbert, 2015) 이외에 미 10군단 중령으로 홍남철수에 참여한 군사(軍史)역사가 로이 애플맨(Appleman, 1990), 미 8군단 소위로 참전한 미국의 역사학자 스탠리 웨인트라움(Weintraub, 2015) 책에서 홍남철수작전을 다루었다. 빌 길버트 책을 토대로 2011년에 개봉한 미국의 다큐멘터리<sup>8</sup>에는 당시 미군 지휘관들, 빅토리호 선원들, 피란민들 증언이 나온다. 재미교포로 홍남철수 관련 역사기록을 정리한 안재철(2008) 책에 미 국방성에서 비밀 해제한 10군단 사령부 지휘 보고서, 10군단 사령부와 UN군 사령부 간 무선통신 전문 9건(안재철, 2008: 258-262, 306-353) 등을 제시해 놓았다.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Th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산하 연구소(Combat Studies Institute)의 리차드 스튜어트(Stewart, 1991) 역시 한국전쟁 때 10군단 지휘관들이 어떻게 작전을 수립하였는지 서술한 책을 썼다.

영화 <국제시장>이나 소설 <홍남철수>는 픽션이므로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홍남철수 당시 피란민 모습을 아비규환으로 묘사했다 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한국군이 쓴 역사자료와 국내 역사문헌에서도 홍남철수 당시의 상황을 아비규환 일변도로 서술해 놓은 자료가 많은 이유는 무

---

8 “Ship of Miracle – In search of Brother Marinus,” <http://www.shipofmiracles.com/> (검색일: 2018. 9. 20).

엇일까? 그 이유는 미군이 총지휘한 홍남철수작전에서 한국군은 대부분 초반과 중반에 철수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군이 주로 목격했던 상황은 미군이 홍남철수작전에 피란민들을 포함시키지 않아 개인 소형무기를 이용해서 북한을 탈출하려는 피란민들로 온통 아비규환이었을 따름이다. 홍남철수작전 중반기에 미군이 피란민도 군 수송선으로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이후 군의 개입 하에 피란민들이 질서를 찾고 중공군이 홍남 부두를 시시각각 포위해 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란민들이 대규모로 질서정연하게 철수한 장면을 목격한 한국군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대략 보름 정도 걸린 홍남철수작전은 사람들의 증언이 날마다 달라질 정도로 긴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홍남철수를 직접 경험한 피란민 구술증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려면 홍남지역 뿐 아니라 동해안과 북한 지역을 넘어 한반도 전역에서 피란민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다만 한 편의 논문에서 이렇게 방대한 작업을 진행할 여력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홍남철수를 직접 경험한 피란민 증언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빈번한 전선의 이동으로 인해 한국전쟁 기간 동안 피란민의 규모는 5백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1951: p.D34). 한국전쟁 동안 북한에서 남하한 피란민의 경우, 북한인구 950만여 명 중 65만여 명 정도가 남하했다는 기록도 있고(권태환·김두섭, 1992: 229) 150만여 명이 남하했다고도 한다(이북5도위원회, 1981: 78). 이처럼 피란민 연구에서 피란민 수치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피란민 자료가 온전하게 남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양영조, 2001: 254-255). 국내 역사문헌에서 그나마 피란민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은 〈민족의 증언〉, 〈임시수도 천일〉 등에 등장하는 관련자들 증언이다. 이 문제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작전·정보 보고서 공개 이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피란민 정책, 동향, 소개 작전, 통계, 구호 정책 관련

자료가 나온다. 피란민 문제를 군사작전과 결부시켜 보고한 내용은 1차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양영조, 2001: 255). 양영조(2001)는 미군 보고서와 국내 증언 등을 광범하게 참고하여 한국전쟁 당시의 피란민 정책을 연구했다. 사실 피란민 연구는 피란이라는 현상 뿐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며 한국전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요 주제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전쟁 당시 총무처장 비서였던 김덕보는 1950년 12월에 UN군과 한국군이 북한 지역에서 철수하자 북한 주민 50만여 명이 남하했다고 증언했다(중앙일보사, 1983: 94). 철수 초기에 UN군과 한국군은 병력과 군수물자 후송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대규모 피란민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던 탓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란민 규모가 늘어나자 군은 이들의 후송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채한국 외, 1996: 274-275). 북한 지역의 동서해 항구와 포구마다 피란민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대형 군 수송선이 없는 한국 해군은 가용 선박을 징발해서 이들을 수송했다(문창재, 2010: 304-305). 동해안에서는 청진항부터 원산항에 이르는 약 500km 일대에 차호, 신포, 삼호, 퇴조, 서호포 등 크고 작은 포구가 수십 군데나 있는데 함흥, 홍남, 원산<sup>9</sup> 이외의 지역에서는 피란민이 대부분 소형목선을 타고 남하했다(부산일보사, 1984: 225, 227). 목선으로 남하한 피란민 집단은 대개 38선 바로 아래 주문진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은 다시 포항, 부산으로 내려오기도 했다(부산일보사, 1984: 229). 정일권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함경도 동해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인사참모 황헌친 대령 보고에 따르면 배를 타고 피란한 사람이 20만여 명 이상 된다고 증언했다. 홍남항과 성진항에서 군 수송선을 타고 남하한 피란민이 각각 10만여 명, 1만여 명이고 여러 포구와 해변에서 소형목선을 타고

9 1950년 12월1일 미 10군단으로부터 원산-홍남 사이의 육로와 철도가 이미 차단됐다는 통보를 받은 제90기동부대 사령관 도일(James H. Doyle)은 원산철수작전을 시작했다. 12월 3일부터 병력과 장비 그리고 피란민을 실은 원산 철수부대는 12월 9일 원산항을 떠났다. 이때 병력 3,834명, 피란민 7,009명, 차량 1,146대, 화물 1만13톤이 부산으로 철수했다(오진근 외, 2006: 401).



남하한 피란민도 10만여 명으로 추산했다(정일권, 1986: 274). 한국군을 통해 북한 주민의 피란 상황을 보고받았던 정일권은 홍남, 원산, 진남포에서 UN군과 한국군의 개입 하에 대형 군 수송선을 타고 피란한 피란민은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증언했다(정일권, 1986: 274). 개별적으로 육로를 따라 피란하거나 동·서해안에서 소형목선을 구해서 얻어 타고 피란을 내려 온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이 피란을 하는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 2. 구술증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기존의 역사에서 간과했던 홍남철수작전 당시 피란민의 경험이다. 질적연구방법으로 홍남철수 때 군 수송선을 타고 남하한 구술자 증언을 채록하였다. 홍남철수작전을 마지막까지 총지휘한 미군 지휘관들이나 빅토리 선원들의 역사기록을 보면 피란민들 모습이 대부분 질서정연하게 나온다. 연구진은 미국의 역사기록에 등장하는 피란민 모습을 관찰하는데 멈추지 않고 실제로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의 구술증언을 통해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주체적으로 홍남철수작전에 동참했는지 동시에 살펴 보고자 한다. 영국의 대표적 구술사가 폴 톰슨(Thompson, 2000: 23)은 구술사는 피지배계층이 세우는 역사로 정의한다. 구술사는 다수의 피지배계층 삶을 역사 속으로 밀어 넣어 역사의 폭을 넓혀서 역사 속 지배계층 이외에 피지배계층도 영웅으로 드러낸다고 말한다. 전쟁연구에서 구술사를 도입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전쟁연구에도 아래로부터 관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구술사는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 구술사 연구를 통해 한국전쟁 경험을 드러내고 역사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시도가 이어졌다(김귀옥 외, 2008; 윤택림, 2003; 조영주, 2013; 한국구술사학회, 2011).

연구진은 홍남철수작전 때 군 수송선을 타고 남하한 구술자 두 명의 증

언을 들었다. 상위 질문 항목을 홍남철수 이전 상황, 홍남철수 당시 상황, 남한 도착 상황, 남한 정착 과정으로 나누고 각각 하위 항목을 두었다. 70대 후반의 김영수(가명)는 연구진과 혈연관계로 인터뷰를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구술자와 연구자의 가까운 관계는 라포 형성에 장점이지만 구술자가 연구자에게 좋은 기억만 말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김영수 개인 이야기보다 홍남철수 상황을 조망하였다. 김영수는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인데 당시 10대 초반 학생이었고 홍남철수 때 가족과 함께 빅토리 호를 타고 남하했다. 그 후 부산에서 지내다 서울에 정착하였다. 구술 장소는 김영수의 자택으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다. 김영수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 의료분야에 종사하다 은퇴했다. 어릴 때 홍남철수를 경험했지만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평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인터뷰가 수월했다.

두 번째 구술자 손동헌은 80대 후반으로 같은 북청군 출신인데 당시 20대 초반이었다. 이북5도청 홍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소개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 연구진의 작고한 친척 고향친구였다. 구술 장소는 손동헌의 자택으로 2시간 정도 증언을 들었다. 연구진과 친척들 이야기를 나누며 쉽게 라포를 형성하였다. 그는 나이에 비해 정정했고 약학 분야 교육자였다. 지금은 명예교수 지위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국내외 대중매체에서 홍남철수 관련 인터뷰를 한 경험이 많아서 생각을 정리해 놓았고 자료도 가지고 있었다. 연구진은 손동헌의 개인사보다 피란민 철수 결정 전후의 상황과 피란민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했다.

손동헌은 북청농업전문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1950년 초 평양 소재 국립가축위생연구소 연구원으로 부임했는데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UN군과 한국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황해도 사리원까지 북진했을 때 연구소의 전문연구원들에게도 임시수도 강계로 피란 가라는 소개(疏開)증명서가 나와 그도 이동했다. 이동 중간에 탈출해 약 400km를 걸

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중공군 개입으로 UN군이 철수하자 홍남철 수작전 당시 일본 국적 화물선 ‘도바다마루(東羽田丸)’를 타고 거제도에 도착했다. 그 후 대구와 부산에서 지내다 서울에 정착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UN군과 한국군이 북한에서 철수할 때 북한을 빠져 나오기 위해 홍남항에 몰려든 피란민은 주로 해방 이후 북한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 속에서 적대계급으로 지목됐던 친일파와 반공주의자, 지주, 기업인들, 종교인들, 지식인, 교육자 등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한국군과 UN군이 북한 지역을 수복했을 때 이들을 돕거나 환영했던 민간인이었다. 김영수의 가족은 홍남철수 당시 철도를 통해 한국군 철수를 돕다가 피란하게 되었다. 손동훈은 해방 전후 중농 가정출신으로 계급성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학창시절에 명석한 학생으로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싶어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문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홍남철수 때 피란하였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각 개인은 관계뿐 아니라 관계의 역사적 종합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과거의 요약체라고 말했다(Gramsci, 1999: 353). 개인의 삶은 단순히 사적 차원을 넘어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 녹아든 결정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개인이라는 창을 통해 사회적 구조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구에서 개인 경험의 사회적 대표성 문제를 굳이 논할 필요는 없다.

### III. 흥남철수작전의 재구성: 역사가 기록하는 사실(史實)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UN군과 한국군은 단숨에 한·만 국경까지 북진한다. 한반도 북서쪽은 미 8군단이, 북동쪽은 미 10군단이 맡아 진격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한반도 북단의 추위와 중공군 개입으로 수세에 몰린 미 8군단은 육로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미 10군단<sup>10</sup>도 장진호 부근의 예하 해병 1사단과 육군 7사단 31연대전투단이 중공군과 전투에서 고전하자<sup>11</sup> 북진계획을 재검토했다(안재철, 2008: 119).

11월 30일, 미 10군단장은 장진호 남단 하갈우리에 있는 해병 1사단 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중공군에 포위를 당한 해병 1사단, 육군 7사단 31연대전투단, 영국 해병 41코만도 부대에게 함흥-홍남 지역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함경도 곳곳에서 작전 중이던 미 10군단 예하 육군 보병 7사단과 3사단, 한국군 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3사단, 한국군 해병 1연대에도 같은 지역으로 철수 명령을 내렸다(안재철, 2008: 57, 121). 미 10군단장은 이들을 홍남에 집결시켜 전력을 정비하고 다시 북진할 계획을 세웠다(안재철, 2008: 161, 199).

하갈우리에 있던 UN군 1만여 명이 철수할 때 장진호 주변 주민 역시

---

10 북동부 전선의 미 10군단은 육군 보병 3사단, 육군 보병 7사단, 해병 1사단으로 구성되었다. 북동부 전선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한 한국군 1군단은 수도사단과 3사단으로 구성되었다. 미 10군단 예하 부대 중 해병 1사단과 육군 7사단은 인천상륙작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안재철, 2008: 74-76).

11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전투이다. 미 해병 1사단은 북서부 전선의 미 8군단과 연결해 압록강까지 진출해 전쟁을 종결짓고자 장진호 유담리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혹한 속에서 중공군 9병단에 포위당했고 1950년 11월 26일부터 약 보름 간 미군은 중공군과 싸우며 장진호 계곡을 벗어나 함흥-홍남으로 철수했는데 이것이 장진호 전투이다. 미 해병 1사단은 700여 명의 전사자, 200여 명의 실종자, 3,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외에 6,200여 명의 비전투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동상환자였다. 비록 막대한 전력손실을 입었으나 2주간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켰으로써 흥남철수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UN군과 한국군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주었다(Russ, 2004: 611; 안재철, 2008: 195-196).

1,500명 이상 따라나섰다. 주로 UN군 북진 당시 환영하고 업무에 협조했던 주민들, 치안대<sup>12</sup>, 기독교인들이었다(안재철, 2008: 147). 미 해병 1사단 행정명령에 따르면 장진호 철수 당시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란민 접근을 적극 통제했다고 한다. 하갈우리에서 출발할 때 미군은 피란민 대열과 거리를 두고 전진했다(서경석, 2000: 50). 피란민 무리는 고토리를 거쳐 진흥리를 지날 때 미군과 떨어졌다. 진흥리부터 미군은 전차나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했던 것이다(서경석, 2000: 53-54).<sup>13</sup>

한반도 북서부 전선이 무너지면서 12월 4일 미 8군단과 한국군 2군단이 평양마저 포기하자(정일권, 1986: 278) 북동부 전선에서 원산-함흥-홍남에 교두보를 구축하고 방어하는 계획도 무너졌다. UN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미 10군단장에게 홍남철수를 명령했다. 극동군 사령관 작전계획 205호(안재철, 2008: 318-328, 202 재인용)에 따르면 먼저 홍남지역<sup>14</sup>에 집결하는 작전을 완수한 후 명령이 내려오면 해상이나 항공기 편으로 병력과 군수물자를 부산-포항 지역에 상륙시키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한편 전쟁포로와 공산주의자에게 보

12 북한주민들은 전쟁으로 인한 행정공백기에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주민자치활동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은 '치안대(治安隊)'이다. 치안대는 한국군과 UN군이 북진해나간 곳마다 주민들 스스로 대장을 선출하고 젊은 남성들이 대원이 되어 활동했다. 이들의 임무 중 하나는 좌우대립으로 인해 비롯된 보복살상을 막는 일이었다(홍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편찬위원회 편, 2016: 135).

13 피란민들은 고토리에서 홍남까지 걸어들 때 많이 희생됐다. 미군은 고토리에서 피란민의 접근을 경고하고 막았으나 피란민은 중공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미군 지뢰에 희생되기도 했다. 중공군은 피란민에게 박격포를 발사하기도 했고 전투에서 방패막이로 이용하여 희생자가 많았다(Appleman, 1990: 343). 북한 정치보위부 요원들은 진흥리 1.5km 삼거리에서 피란민을 억류한 뒤 등급 분류해서 끌고 가기도 했다. 인민군은 부역자 명부를 등급별로 만들어 특등급은 현지에서 총살하고 1-2등급은 형무소로 보내고 3-4등급은 교화시켰다는 기록도 있다(서경석, 2000: 53-54).

14 철수작전 기지로 홍남을 고른 이유는 첫째, 함흥에 있는 10군단사령부와 가장 가까운 항구였다. 둘째, 홍남부두는 대형 선박 7척이 동시에 정안해 인원과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되어 있었다. 또 LST가 계류할 수 있는 해안도 있었다. 셋째, 연포비행장이 가까이 있어서 육해공군의 합동 철수작전을 위한 항공통제센터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 함흥까지 철도가 부설되어 있어 병력과 물자 수송에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함평수, 2007: 162).

복 당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인사는 흥남지역에서 철수시키고 교량과 공항, 항만 등 군사적 가치가 높은 시설물이나 철수 불가능한 군수물자, 장비는 다 파괴하도록 했다.

12월 9일 오후 성진항에서 한국군 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3사단이 출항했다. 군 수송선은 12월 10일 흥남에 들러 피란민 후송 대책으로 수도사단 1개 연대를 상륙시킨 후 나머지 부대를 부산으로 철수시켰다(오진근 외, 2006: 401). 장진호에서 많은 희생을 치른 UN군 1만여 명은 흥남항까지 128km를 육로로 철수했다. 11일 이들이 흥남에 도착한 후 해로를 통한 흥남철수작전을 본격화하였다(안재철, 2008: 187; Gilbert, 2015: 83). 12월 15일 미 해병 1사단, 17일 한국군 수도사단, 21일 미 육군 7사단, 미 육군 보병 3사단 순서로 흥남항을 벗어났다(Appleman, 1990: 322; 현봉학, 2017: 420).

작전에는 수백 척의 배가 필요했다. 군 병력과 장비 철수를 위한 수송선도 필요하고 병력이 안전하게 떠나도록 방어할 전함, 순양함, 구축함과 같은 전투함과 함재기를 보유한 항공모함과 호위함정과 흥남 앞바다에 깔린 기뢰 제거 전문함정도 필요했다. 짧은 시간 동안 군 병력이 철수하려면 대단위 해군 부대가 일시에 움직여야 했다(안재철, 2008: 210-211).

당시 흥남항 주위에는 탈출하려는 주민이 10만여 명 이상 몰려왔다. 미 10군단 지휘관들은 대규모 주민 탈출을 예측하지 못했다(Stewart, 1991: 46-47). 피란민 철수 결정 이후 미 해군과 한국 해군은 군 수송선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다(Appleman, 1990: 343). 미 민사작전부대는 미 헌병대와 미 육군 소속의 방첩부대(CIC: Counterintelligence Corps)<sup>15</sup> 통제 하에 피란민을 대기 장소인 서호진으로 이동시키고 식량을 공급하고 관리했다(Stewart, 1991: 45-46; Appleman,

---

15 미 10군단장 아본드가 피란민 철수 결정 이후 미 헌병대와 CIC는 한국군 1군단 헌병대와 함께 집중 심문을 통해 오열(五列) 침투와 인민군 척후병(斥候兵)을 가려내려 했다. 이를 위해 피란민에게 정보를 얻기도 했다(Stewart, 1991: 46). 피란민들이 밀려들자 헬기로 저공비행하며 감시했다(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편찬위원회 편, 2016: 210-213).

1990: 343). 한국군 1군단장 김백일은 참모장인 김종갑 준장과 운송책임관인 군수참모와 함께 흥남철수 마지막까지 피란민의 승선과 수송을 지휘했다(신동아, 2017/08: 382). 19일에 미 민사작전부대가 철수함에 따라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피란민을 관리한 것은 미 육군 보병 3사단이었다. 이들은 피란민의 마지막 탈출 계획까지 세웠다(Stewart, 1991: 46).

당시 미 10군단 사령부와 UN군 사령부 간 무선통신 전문에(안재철, 2008: 258-262, 335-353) 피란민 관련 내용이 나온다. 12월 9일 UN군 사령부 발신 메시지 CX-50838에는 민간인 조력자와 공산주의자로부터 보복 당할 염려가 있는 한국 정치인을 가능한 한 많이 철수시켜야 한다는 명령이 나온다.<sup>16</sup> 12월 14일 극동군 사령부 수신 메시지 X-15132에는 피란민을 관리한 미 육군 3사단장 보고가 나오는데<sup>17</sup> 함흥 시 대표 세 명이 12일 미 육군 3사단을 방문하여 북한주민도 철수시키거나 지켜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sup>18</sup>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흥남의 UN군을 찾아 반공주의자와 피란민 수송을 부탁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발언도 남겼다. 12월 22일 극동군 사령부 수신 메시지 X-15345에는 미 10군단 사령부가 인도주의적 이유로 피란민을 철수시켰고 더 많은 피란민을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나온다.<sup>19</sup>

UN군 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민간인 10만여 명 소개 작전이 쉽게 결

---

16 United Nation Command, General Headquarter, "Outgoing Message: CX 50838, 9 December 1950", Emergency, Top Secret, Declassified per AR380-5, 20 August 1975, MacArthur Archives, R6-9 Radiogram; Box #54; F "Outgoing Misc.(XTS), June 1950-April 1951"(안재철, 2008: 335-340 재인용).

17 Far East Command, General Headquarters, "Incoming Message: X 15132, 14 December 1950", Operational Immediate, Secret, Declassified per JCS Ltr of 20 August 1975, MacArthur Archives(안재철, 2008: 344-348 재인용).

18 이우춘(함흥시 부시장), 모학복(함흥시 남구청장), 김일성(한국청년회의 함경남도 의장)(문창재, 2010: 303).

19 Far East Command, General Headquarters, "Incoming Message: X 15345, 22 December 1950", Priority, Secret, Declassified per JCS Ltr of 20 August 1975, MacArthur Archives, R6-9 Radiogram; Box #84; F "X-Corps, In, -Dec, 50-April 1951"(안재철, 2008: 352-353 재인용).

정된 것이 아니었다. 병력 철수에 방해도 되고 배는 없는데 피란민 중 오열(五列)이나 인민군 척후병(斥候兵)이 숨어들 가능성도 있었다(현봉학, 2017: 170, 175). 현봉학 박사와 김백일 군단장, 미 해병 대령 에드워드 포니(Edward H. Forney) 등 여러 사람이<sup>20</sup> 미 10군단장을 설득했다. 12월 14일 오전, 미 10군단장은 사무실에 민사작전부대의 무어(Moore)중령, 포니 대령, 현봉학 박사, 김백일 군단장과 그 부관을 불러 함흥 지역에 있는 4천 명 정도의 피란민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현봉학, 2017: 176; 정일권, 1986: 271-272). 현봉학은 1973년에 뉴욕의 한국 방송국 주관으로 아몬드의 집을 찾아가서 인터뷰했는데 아몬드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혹한 속에서 탈출하려 애쓰던 피란민 모습을 본 것이 이들의 철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다(현봉학, 2017: 170).

군 수송선을 통한 피란민의 본격적인 해상 철수는 12월 19일 배가 도착한 이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피란민을 태운 배는 빅토리 호였다. 12월 22일 17시 30분, 미 10군단 지휘관 5명이 빅토리 호 레너드 라뤼(Leonard LaRue) 선장과 로버트 러니(J. Robert Lunney) 상급선원을 만났다.<sup>21</sup> 유류공급을 위해 흥남에 정박했던 빅토리 호는 마지막에 남은 화물선 중 하나였다. 지휘관들은 라뤼에게 민간인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막바지까지 배를 타지 못한 피란민이 부두에 떼 지어 있는 모습을 본 라뤼 선장은 그들을 최대한 많이 태우기로 결정했다(안재철, 2008: 701-704).

화물선인 빅토리 호는 60명 이하의 승무원을 태우도록 설계한 선박이었다. 그런데 선장은 군수물자 25만 톤을 버리고 피란민 14,000명을 배에 태

20 에드워드 포니(Edward H. Forney) 대령은 인천상륙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상륙작전 전문가로 흥남지역에서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는 10군단 통제부 지휘관의 임무를 부여받았다(안재철, 2008: 329, 207; Weintraub, 2015: 169).

21 부참모장 윌리엄 맥카프리(William C. McCaffrey) 중령, 공병참모 에드워드 로니(Edward L. Rowney) 중령, 작전참모 존 차일즈(John H. Childs) 중령, 정보참모 윌리엄 퀸(William W. Quinn) 중령, 군수참모 어브레이 스미스(A. D. Smith) 대령(안재철, 2008: 701; 김행복, 2005: 51).



왔다.<sup>22</sup> 14,000명 승선에 14시간이 걸렸다. 12월 22일 21시 30분 승선을 시작해 12월 23일 11시 10분 완료했다(Gilbert, 2015: 116, 122). 12월 23일 토요일 14시 54분에 빅토리 호는 출항했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다(안재철, 2008: 716, 727). 24일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이미 한반도 전역에서 100만여 명의 피란민이 몰려와 거제도로 행선지를 변경했다.<sup>23</sup> 12월 24일, 홍남부두의 모든 시설과 배에 싣지 못한 다이너마이트 400여 톤, 폭탄 227여 톤, 휘발유 드럼통 200개와 각종 군수물자를 폭파하고 군함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y) 호에 승선한 미 10군단장이 16시 32분 홍남항을 떠나며 작전을 마무리하였다(안재철, 2008: 279-280). 홍남철수는 선박 109척으로 UN군 105,000명, 피란민 98,100명, 각종 차량 17,500대, 화물 350,000톤을 193회에 걸쳐 후송한 대규모 합동작전이었다(Gilbert, 2015: 132-133; Weintraub, 2015: 314).

---

22 “역사재널e-희망의 크리스마스 항해 홍남철수작전.” <http://www.youtube.com/watch?v=QQ4flyjWSU0&sns=em> (검색일: 2018. 9. 20).

23 홍남, 원산, 진남포 등 북한지역에서 철수하는 병력과 피란민, 화물과 장비가 너무 많아 부산항은 그것을 다 소화할 수도 없게 되자 한국 정부와 UN군은 전쟁에 필요한 전투 장비는 삼척, 묵호 등 동해안 항만과 부산항에 분산 상륙시키고 피란민은 거제도에 상륙시키기로 했다(함명수, 2007: 171). 1.4후퇴 이후 북한지역에서 남하한 피란민들은 주로 거제도, 제주도, 김해, 삼랑진, 밀양으로 이송됐는데 거제도에 15만여 명, 제주도에 10만여 명, 그 외 지역에 1만여 명 이송되었다(부산일보사, 1984: 235-236).

## Ⅳ. 흥남철수작전의 의미:

### 역사적 기록과 개인의 기억이 교차하는 지점

#### 1. 흥남철수 이전의 상황

손동헌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이다. 3형제 중 장남이고 아버지는 고향 면사무소에서 일했다. 해방 전후 가정 형편이 중농 수준이었는데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토지개혁 당시 집안의 토지를 일부 몰수당했다. 그는 우수한 학생으로 고등전문학교인 북청농업전문학교 수의학과에 갔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20대 초반으로 수의학과 졸업 후 가축의 전염병 예방약을 연구하고 만드는 평양 소재 국립가축위생연구소로 직장을 배치 받아 일하고 있었다.

6.25사변이 났거든. 우리는 특별한 기술자, 연구원이야. 거기서 예방의학을 만들어, 가축의 예방약, 탄저균이든지, 파상풍이든지 전부 거기서 만들거든. 그와 같은 연구소라. 세균 전쟁한다고 하면 그 연구소에서 만드는 거야. (...) 거기 연구소에 있다가 자강도 강계로 피란을 가라는 거야. 10월 10일 날에. 국군이 9월 28일 서울 수복하고 10월 10일에 사리원까지 들어왔어. 이를 후 평양에 들어올 테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 소개시키는 거라. 자기들이 말하는 뭐이랄까 고급간부랄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강도 강계를 가라고 하는데 평양에서 밤 12시에 떠났는데 걸어가지고 160리(64km) 되는 순천이라는 곳에 가니까, 순천에 보니까 거기 표시표가 있는데 신의주 가는 길이 있고, 자강도 강계가 있고, 함흥 가는 길이 있어. 북청농업전문학교 동창하고 우리는 도망가자 해서 우리는 걸어서 낭림산맥 건너고 함경산맥 건너고 거의 2000고지 되는 곳을 걸어 죽 함흥까지 가는 거라. 함흥까지 가서 북청에 오니까 10월 10일에 떠났는데 집에 도착한 것은 10월 25일에 도착한 거라. 15일 동안 걸은 거라. 집에서는 죽은 아이가 돌아왔다고 모두 기뻐했지. 집에서 죽 있다가 보니

까 12월 8일 쯤 되니까 (미 10군단 사령부가 있고 손동현의 친척이 있는 함흥으로) 피란을 가야하는데 그때 당시 루머가 뭐인가 하니까 북위 40도(함흥 지역)까지 국군들, UN군들이 철수하고 봄이 되면, 다시 해동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두 달 내지 삼 개월 동안만 더 참으면 다시 고향에 온다, 이런 생각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셋이 나온 거라. 그 남자가 누군가 하니까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나 세 사람만 같이 나왔지. 셋이 신작로 길이 있는데 거기 나오다보니까 피란민들이 어찌나 많은지, 청진에서 오는 사람, 해산진에서 오는 사람, 뭐 해가지고 대만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삼촌, 나 모두 뿔뿔이 헤어졌네.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바뀌자 잠시 피신할 생각으로 집안 남자 셋이 함흥으로 피란을 떠났는데 피란민이 너무 몰려들어 가족과 헤어졌다. 혼자 남은 그는 후퇴하는 한국군 차를 얻어 타고 함흥에 당도했다. 함흥에 갔더니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란을 가려면 홍남에 가야한다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 미 10군단장이 피란민도 군 수송선으로 철수시키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주민들이 함흥에서 홍남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sup>24</sup>

함흥에서 홍남을 나와야 되겠는데 그걸 못 나오는 거라. 누구 다른 사람들이 홍남에 내려가자고 해서 나가 보면 군인들이 MP나 미군들이 거기 못 내려간다는 거야. 왜 못 내려가냐 하니까 군인들부터 먼저 후퇴하거나 말이지요, 군수물자를 가득 실어야 하는데 거기에 피란민까지 태울 염려가 없는 거라. (...) 군인들이 (북한주민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거든. 함흥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못 내려가는 거라. 그래서 함흥에서 있었는데 그 때 누구를 만났냐하면 농업학교 동기 동창을 만났어. 그 친구가 함남도청에 그때 근무했어. 그 친구가 길가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오늘 밤 12시에, 그제 언제냐니까 1950년 12월 15일 밤이야. 오늘 함흥역에 나오라 그래. 그래 가지고서 역에 나가보니까 거기서

24 미국 정부에서 비밀 해제한 10군단 사령부 지휘 보고서에는 홍남철수작전 초기에 미 10군단장이 피란민을 함흥-홍남 일대에 진입시키지 말라고 명령한 기록이 있다. United States Army, Headquarters X Corps, "Command Report for December 1950", Secret, MacArthur Archives(안재철, 2008: 310-317 재인용).

기차가 나온 거라, 그 기차가 나온 것이 그 현봉학 교수가 통역을 하면서 '피란민을 태워야 합니다' 얘기해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가 허가를 맡아가지고 타게 된 거지.

함흥에는 미 10군단 사령부가 있었다. 12월 15일 자정이 지나서 마지막 열차를 통해 사령부가 완전히 철수했다. 미 10군단장은 이 열차로 기독교인이나 UN군과 일한 주민 4,000명도 소개(疏開)하게 했다(현봉학, 2017: 176; Gilbert, 2015: 101-102). 현봉학은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함흥에 갔는데 함흥 인구 절반인 5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함흥역에 몰려 마지막 피란 열차를 타려 했다고 증언했다. 4,000명은 열차에 탔고 1,000명은 지붕 위에 올라갔지만 함흥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열차를 타지 못한 사람은 철로를 따라 13km 거리를 3일 동안 걸어 홍남까지 왔다(현봉학, 2017: 178-179; Appleman, 1990: 343).

홍남항은 청진 이남과 원산 이북 동해안 지역에서 도보나 철도로 온 피란민, 장진호에서 UN군을 따라온 피란민, 함흥에서 열차를 타고 온 피란민, 함흥 방면에서 홍남까지 걸어 온 피란민 등 10만여 명 이상 북적였다. 이들은 약 일주일 간 홍남항에서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생활을 시작했다. 12월 17일과 18일에 한국 LST 3척과 일본 수송선 6척이 홍남항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민간인 소개(疏開)를 시작했다. 12월 19일부터 LST는 1,000명 정도 타는 적재량 한도를 넘어 5,000명 이상을 태웠다. 한 척은 10,000명을 태웠다고 한다(Gilbert, 2015: 102-103).

홍남철수작전에 피란민을 포함시키기 전까지 민간인의 홍남 진입은 쉽지 않았다. 손동현은 당시 헤어졌던 삼촌과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12월 8일에 헤어진 삼촌은 홍남 근처까지 갔으나 진입 금지로 며칠을 기다리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다. 피란민이 홍남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12월 15일 이후 이므로 홍남에 일찍 도달했던 사람은 오히려 떠나지 못했다. 손동현의 아버지는 동해 포구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포항으로 왔다가 나중에 그와 만났다.

## 2. 피란민이 홍남철수작전에 동참했을 당시 상황

김영수의 고향도 함경남도 북청군이다. 전쟁 당시 10대 초반으로 학생이었다. 김영수는 4형제 중 장남이고, 아버지는 철도역에서 근무해서 아버지가 근무하던 역 근방에 살았다. 김영수의 아버지는 홍남철수 당시 한국군이 철도를 통해 철수하는 것을 관리했다. 가족은 마지막 열차를 타고 홍남까지 피란을 갔다. 그리고 홍남부두에서 배를 타기 위해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고 했다. 김영수는 그 당시 나이가 어렸지만 인상적인 장면들은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었다.

홍남철수, 국군이 철수할 때 아버지도 끝까지 철도국에서 그걸 다 관리하고, 군인하고 같이. 그때 당시 거기엔 온 군인이 육군 수도사단, 맹호 사단 그제 청진까지 올라가서 두만강까지 갔었는데 (북쪽 지역에서 남쪽의 홍남으로) 철수할 때 그들이 다 철수했는데 제일 마지막 기차를 타고 우리가 철수를 해서 오다보니 홍남까지 왔고 그 다음에 길이 막혔어요. 중공군이 들어왔어요. 그 때 홍남에서 탄 배가 매리디스 빅토리 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기서도 유명하지만, 요즘 영화에도 나와서. 그거는 철수 제일 마지막 배가 빅토리 호라는 거지. 그 배만 한 게 아니고 그 며칠 전부터 배가 계속 실어 날랐어. 군인 배, 그 함대라든가 군수송선 있잖아요? LST같은 거. 그런 수송선에 탱크가 들어가면 가상이에(주변에) 사람들을 실어가고 했어. 일주일 이상 다 타고 나갔는데, 그걸 타려고 사람들이 서로가 홍남부두에 줄을 서는 거죠. 매일같이 줄을 섰다가 (오늘은) 끝났다고 하면 헤어지고, 우리도 홍남에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 못한 사람들을 마지막에 실은 배가 빅토리 호라 이 말이야. (...) 그래서 빅토리 호가 있을 때 홍남부두는 말이지, 뒤에가 산이 있는데 앞면만 국군이 있었고 뒷면은 중공군이 있었어요. 홍남부두 제일 가운데 그 유명한 미국 미주리 호와 똑같은 배, 큰 순양함이 서가지고 포를 매일 쏘고, 길가에서도 낮이고 밤이고 계속 쏘. 쏘지 않으면 중공군이 넘어오니까. 그걸 매일 같이, 사방에서 포 소리 나고. 밤에도 마찬가지야. 불이 그냥 흰해. 조명탄 올리고. 바다에 함정들이 전부 쏘고. 그렇게 생활을 며칠을 했지.

김영수의 증언처럼 당시 홍남부두는 신속한 철수작전을 위해 중공군이 부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엄호 공격을 하고 있었다.<sup>25</sup> 피란민의 무질서로 아비규환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쏘아대는 포탄 소리로 그 주변이 온통 아비규환이었을 것이다. 중공군은 함흥 북쪽 산악지대에 숨어서 공격했다. 장진호 전투에서 UN군의 공중 지원과 함포 사격으로 병력 상 큰 손실을 입은 중공군은 함재기 공격을 피하고자 산악지역에서 UN군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안재철, 2008: 231). 중공군이 주로 야간을 틈타 공격하는 점을 고려해 12월 15일 세인트 폴 순양함이 야간 포격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UN군은 24시간 철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안재철, 2008: 240-242).

김영수는 며칠에 홍남에 도착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아마도 15일 이후에 홍남에 도착했을 것 같다. 한편 손동헌은 15일에 함흥에서 마지막 열차로 홍남에 도착했고 피란민의 대규모 해상철수가 시작된 19일에 바로 군 수송선을 탔다. 그가 탄 배는 ‘도바다마루(東羽田丸)’라는 일본 국적의 화물선이었다.

홍남에 오니까 배 탈 게 없어. 12월 15일에 도착했는데 홍남에 가보니까 모두 다 폭격 맞고 초가집이 한 개 있는데 초가집 거기서 이제 어디 았을 데가 없어. 피란민이 백 명쯤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950년 12월 19일 저녁에 우리보고서 뭐인가 거기 저 100명 썩 줄을 서라고 해서 배를 탔지. 그래가지고 12월 19일에 배를 타가지고 왔는데, (...) 그 배가 일본 ‘도바다마루’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배인데 화물선이야.

손동헌은 군이 개입하여 피란민을 관리하기 시작한 15일부터 홍남에 있

---

25 미군은 철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화력을 이용한 공중방패(aerial canopy)와 철의 장막(steel curtain)을 설치했다. 공중방패란 7척의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들을 띄워 홍남 하늘에 방패를 치듯 적진을 폭격한다는 뜻이다. 철의 장막은 15척의 군함에 의한 함포 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차단한다는 뜻이다. 공중방패를 위한 함재기의 출격은 홍남 지역 내에서만 1,700회였다(함명수, 2007: 162-163).

었다고 했다. 그런데 배를 기다리는 동안 흥남부두 상황은 아비규환이 아니었다고 했다. 배를 탈 때도 질서정연하게 100명씩 줄을 서서 빠르게 올랐다고 했다.<sup>26</sup> 19일 저녁 손동헌이 탄 화물선은 과적재(過積載) 상태라 천천히 항해해서 24일 부산항에 머물다가 25일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다고 말한다.

소설 〈흥남철수〉에서 군 수송선을 탈 때 기독교인과 UN군을 도와준 사람부터 먼저 태웠다고 나온다. 그런데 두 명의 구술자는 모두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함흥-흥남행 열차는 기독교인이나 UN군을 도와준 사람을 우선 태웠으나 흥남철수작전 당시 배를 타는 순서에 우선권은 없었다고 했다. 피란민이 10만 명 이상 밀집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특혜를 줄 시간도 없을 만큼 현장은 다급했다고 이들은 말한다.

손동헌은 19일에 배를 탈 때까지 초가집에서 기다렸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수는 23일에 마지막 배를 탈 때까지 드럼통을 밀면서 UN군을 도왔다고 한다. 두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 19일에 배가 도착한 이후 피란민도 드럼통을 옮기면서 적극적으로 흥남철수작전에 동참했던 것 같다.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미군들 철수하는 데에 드럼통도 밀어주면서 일을 했지. 빨리 태워줄까 하고, 우리 학생들은 다 했어. 그렇게 하다가, 밀어주다가 또 못타면 나오고, 그 양쪽, 서호라는 데하고 흥남부두하고 양쪽에서 배를 철수시키는데 못 탔어요. 우리는 가족이 있으니까, 아무 집이나 다 비어있으니 가서 자고, 아침에 줄 서라 하면 줄을 서고 그렇게 매일 이동했어요. 근데 그 해가, 내가 잊어 먹지 않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추웠던 때가 없었어요. 눈이 엄청 쌓였어. 허리까지. 그런 속을 헤매고, 흥남부두 갔다가 서호

---

26 손동헌의 주장과 일치하는 기록이 미국 정부에서 비밀 해제한 10군단 사령부 지휘 보고서에 나온다. 미 민사작전 부대는 12월 14일-20일 동안 흥남 지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피란민을 10군단 소속 한국인 헌병들과 정보팀의 도움을 받아 서호진으로 이동시켰다고 서술하였다. 이들을 100명 단위로 편성한 후 각 그룹마다 한 명의 책임자를 두어 통솔하고 적절한 때에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United States Army, Headquarters X Corps, "Command Report for December 1950", Secret, MacArthur Archives(안재철, 2008: 310-317 재인용).

갔다가…… 그렇게 했었지. 우리는 단체로 기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학교 동창들이 많이  
왔었어. 그때 같이 일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그 대신 먹는 거는 밀가루가 산터미처럼 있었  
어요. 쌀은 없어도, 그래서 밀가루 갖고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메리디스 호라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본 바로 그 배예요. (…) 그 때 당시 그 배가 철수하고 그 다음에 군인 배  
가 철수하면서 흥남부두가 폭파된 거지. (…) 거기에 군수품하고 먹는 거하고 다 있었지.  
그걸 중공군한테 안 주기 위해서 폭파시킨 거지.

흥남철수 작전을 지휘했던 아몬드 10군단장의 외손자인 토마스 퍼거슨  
(Thomas Fergusson) 대령은 외할아버지한테 한국전쟁과 흥남철수작전 이야기를  
를 약 14시간에 걸쳐 듣고 녹취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아몬드는 흥남철수작  
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다고 했다. 당시 자신들만 바라보는 피란민을 외면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칸에는 탱크와 물자 사이 공간도 많아 그  
곳에 피란민을 태우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아몬드는 철수 작전 때 기름 드럼  
통 같은 물자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 피란민에게 일을 시켜보자고 제안했  
다고 한다. 이는 김영수의 증언과 일치했다. 아몬드는 피란민이 2인 1조로 50  
갤런(gallon) 드럼통을 굴리며 배에 실었는데 이들이 없었으면 이 물자는 불에  
태웠거나 중공군에게 빼앗겼을 것이라 하며 피란민이 철수작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또한 흥남철수작전 당시 상황이 아비규환은 아니었다고 말  
했다. 무엇보다 피란민이 UN군 지시를 잘 따랐다고 설명했다(워싱턴중앙일보,  
2015/02/12).

흥남철수 때 아몬드의 부관으로 육군대위로 복무한 뒤 나중에 미 국무  
부 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헤이그(Alexander Meigs Haig Jr.)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아몬드 장군의 통신장비와 지프차와 기타 물건을 화물선에 싣고 마지  
막으로 떠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전반적으로 큰 위험 없이 질서정연하게 진  
행된 철수였다.”(Gilbert, 2015: 121). 흥남철수 마지막까지 피란민을 관리했던  
미 육군 3사단의 부대원과 3사단장인 로버트 소울(Robert H. Soule)은 피란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안재철, 2008: 271). “이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을 빨리 구출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지도 않고 다른 소란도 없었다. 다만, 그들이 처음부터 UN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작정 따라온 것처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피란민을 마지막으로 태운 빅토리 호에는 라ړ 선장을 포함한 선원 48명, 미군 중위 1명, 한국군 헌병 17명이 승선했다(안재철, 2008: 753-754; 문창재, 2010: 331). 김영수는 배에서 피란민이 질서정연했고 조용했다고 말했다. 피란민은 몰랐지만 선장과 선원은 이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았다. 배 안에는 기름 드럼통뿐만 아니라 300톤의 제트기 연료가 있었다. 또한 피란민을 위한 구조장비도 전혀 없었다. 항구를 빠져나가면 안전 경계로 무전통신도 두절된 상태로 항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홍남항 근처 50km 해역에 깔린 기뢰 4000여 개 위를 지나가는 것이었다. 빅토리 호에는 기뢰 탐지기가 하나도 없었다. 홍남철수 두 달 전에는 미 해군의 소해정 3척이 기뢰로 폭발해서 침몰한 일도 있었다(안재철, 2008: 717).

빅토리 호가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라ړ 선장이었다.<sup>27</sup> 그는 항해 내내 단호하고 안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선장이었다. 라ړ 선장은 〈뉴스 다이제스트(News Digest)〉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하나님이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항해했다고 믿는다. 여러 번 생각해 봐도 배가 폭발하는 참사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Gilbert, 2000: 161).”

---

27 라ړ 선장은 4년 뒤 미국 뉴저지 주 뉴튼(Newton) 소재 ‘성 바오로 대수도원(Saint Paul’s Abbey)’ 소속 베네딕트 수도원에 ‘마리아 수사(Brother Marinus)’라는 이름을 지어 들어갔다(Gilbert, 2008: 206-207).

### 3. 질서정연하게 홍남철수작전에 동참했던 피란민들

해방 이후 평양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출발점으로 중요사업을 국유화하고 화폐개혁을 시행했다. 또한 사상개조 운동을 벌이는 등 급격한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했다. 5정보 이상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했다. 이런 급진적인 개혁으로 상당수 지주와 소자산가는 해방 직후부터 월남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 지역은 19세기 말부터 활동한 서구 선교사들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많았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종교단체의 토지도 몰수했고 종교생활도 탄압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개혁 속에 적대계급으로 지목을 받은 사람은 친일파, 반공주의자, 지주, 기업인, 종교인, 지식인, 교육자 등이었다. 홍남철수 때 이러한 적대계급을 비롯하여 한국군과 UN군이 북한 지역을 수복했을 때 협조한 지방자치활동 위원과 치안대원과 청년단원, UN군을 환영했던 민간인이 모두 홍남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빌 길버트의 책에 홍남철수를 겪은 피란민의 구술증언이 나온다. 천주교인이던 29살 이금순은 세 자녀와 빅토리 호를 타고 남하했다. 그녀는 해방 이후 공산당이 기독교인을 박해해서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남편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근무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감시를 받다가 한국전쟁 직전 비공개 결석재판에서 총살형 언도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 살다 홍남철수에 동참했다고 말했다(Gilbert, 2015: 141-142). 실제로 UN군 사령부가 민간인 홍남철수를 승인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현봉학 박사와 포니 대령이 피란민 대부분은 선교사들 활동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피력한 것이었다(Weintraub, 2015: 295-297).

김영수 가족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국군이 열차로 철수할 때 도와서 관리하는 일을 했으므로 마지막 열차를 타고 홍남에 오게 됐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국민학교(인민학교) 때 친구들끼리 ‘김일성이 어땠대’ 하면 그 이튿날 아주 혼나. 그런 세상이었거든. 그런 세상에 국군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해방이 됐겠어? 진짜 해방감을 느끼지. 전부 철수하려고 하지. 할 수 없이 남아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 철수한 사람들은 말이죠, 소위 말해 부르주아, 노동자, 농민인데 실제로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는 것이 공산당이라고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완장을 채우고 앞장세우니까 온 동네 다 그렇게 죽인 거지. 죽이니까 피해서 살려고 나오는 거지.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지. 그 대신 내가 어릴 때 그 나올 때 마음이 어땠냐면, 곧 다시 간다. 누구든지 모두 다들 국군이 갔다가 금방 오니까 중공군 때문에 나가지만 다시 올라간다. 한 달 내지 두 달 내지 계산하고 나온 거지. (...) 그래가지고 다시 배가 거제도도 갔거든요. (...)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말이죠, 이 나온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밝아. 왜 그랬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말을 함부로 못하는 억압에서 벗어난 것이지. (...) 이 자유를 만끽하느라고 전부 고생해도 전부 얼굴이 밝아. 내가 어릴 때도 그런 걸 느꼈고 우리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야.

연구진은 손동현과 인터뷰를 마칠 때 왜 평양에서 강계로 이동하는 중에 탈출을 결심했는지 물었다. 그는 계급성분이 좋지 않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니고 지식인이었지만 전문 기술자였다. 질문을 받고 손동현은 연구진을 한동안 쳐다보다 미소 지으며 자신이 외국매체와 인터뷰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 책에 탈출 이유가 짧게 나온다. 자유로운 삶을 원해서 탈출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적대계급에 속했거나 UN군과 한국군을 도운 주민은 UN군이 홍남에서 철수할 때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들을 따라나섰다. 장진호에서 UN군을 따라 홍남까지 걸어온 피란민, 중공군의 홍남 교두보선 접근을 막고자 UN군이 주변 다리와 철교를 폭파했는데도 홍남까지 왔던 피란민 기록을 보면(안재철, 2008: 243-245) 생존에 대한 절박함과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절실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홍남철수작전 기간 동안 배

를 타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매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드럼통을 굴리면서 용감하게 흥남철수작전에 동참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김영수는 배가 부산항에 잠시 머물렀을 때 첫 느낌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남한은 이모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쪽은 이모작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보리가 있으니까. 부산 항구에 딱 올라왔는데, 바깥에 배가 서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영도 쪽이지. 파랑더라고. 아. 진짜 이모작이구나. 내 첫 느낌이었어. 풀이 있으니까. 파란 게.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리야. 풀이 아니고.

당시 어린 나이였던 김영수는 평소 남한은 북한보다 기후가 따뜻해서 이모작을 하니까 겨울에도 먹을 게 많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산항에 도착하니 한 겨울에도 파란 풀이 가득해서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영수는 한동안 부산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 당시는 누구나 다 어렵게 살았다고 증언했다.

김영수는 어릴 때 피란을 나와서 남한에 정착해 산 지 약 65년쯤 되었으므로 실향의 감정은 그다지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명절에 몇 시간 씩 자동차 타고 고향에 가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했다. 어릴 때 고향에서 놀던 생각이 가끔 나서 그림고 한 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구술증언을 마쳤다. 손동헌은 마지막 소원이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을 한 번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술 증언을 마쳤다.

## V. 나오며

홍남철수를 다룬 국내 역사문헌이나 소설, 영화, 다큐멘터리 속 피란민들은 전쟁에서 벗어나고자 맹목적이고 질서 없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려져 왔다. 결과적으로 일반대중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논문은 구술증언과 홍남철수를 총지휘한 미국의 역사문헌, 국내 역사문헌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서 피란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홍남철수작전에 동참했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두려움에 차 있었지만 냉철하고 용감하고 질서정연하게 홍남철수작전에 동참했다. 연구진은 짧고 긴박한 철수 기간 동안 피란민을 질서정연하게 만든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북한에서 적대 계급으로 억압을 받아왔거나 UN군과 한국군을 환영하고 도왔던 북한 주민 10만여 명은 자유를 찾고자 혹은 생존하고자 홍남에 모여들었고 묵묵히 배를 탈 때까지 기다렸고 드럼통을 굴리며 열심히 홍남철수작전에 동참한 것이다.

블록버스터 전쟁영화나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전쟁과 철수작전 이야기가 고작 약 65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으며 그 이야기는 평범한 두 구술자를 넘어 10만여 명이나 되는 피란민의 개인사라는 사실이 숙연하게 만든다. 연구진을 더욱 숙연하게 만든 사실은 홍남철수 때 같은 수의 피란민들이 선박 부족으로 군 수송선을 탈 수 없었다는 점이다(Stewart, 1991: 46; 채한국 외, 1996: 280).<sup>28</sup>

---

28 홍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책에 홍남철수를 겪은 사람들 증언이 나온다. 함경남도 단천군 출신 김명권은 한국전쟁 당시 10대 초반으로 부모님과 12월 23일 홍남항에 도착했는데 이미 UN군이 홍남항 진입을 막고 있었다. 영문을 모 르다가 나중에야 홍남철수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치안대였던 그의 아버지 김순찬 대장은 피란

약 65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을 겪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분단의 상처는 여전히 견고하고 단단하다. 이 논문은 흥남철수를 겪은 평범한 피란민과 이들을 도와 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전쟁이 정전선언으로 중단한 지 약 6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헤어진 가족의 행방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수많은 실향민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자 한다.

---

하지 못한 젊은이들과 함께 '오봉산반공유격대(五峰山反共遊擊隊)'를 조직해 활동하다 1951년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쟁고아로 신분을 위장하여 지내다 인민군에 자원입대한 후 1959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남했다. 또 다른 증언으로 UN군이 북진했을 때 십여 명의 기관사가 한국군 제301 철도부대로원으로 자원 입대했는데 그 중 한 명인 김영훈(가명)의 증언이 나온다. 철도부대의 임무는 원산항에 들어오는 군수물자를 열차로 수송하고 함경선, 평원선, 경원선을 통해 전북지역에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일이었다. 철도부대는 함경남·북도에서 도별로 남하하는 피란민을 열차로 호송하기도 했다. 철도부대가 마지막에 한 일은 12월 24일 흥남과 서호진 폭파 전에 흥남과 서호진 주민을 서호진 북동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그 후 해로로 부산에 도착했다(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편 찬위원회 편 2016: 245-266, 395-401).

## 참고문헌

- 국방부장관국 전사편찬위원회. 1951. 『한국전란1년지 1950-1951』. 서울:국방부.
- 권태환·김두섭. 1992. 『인구의 이동』.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귀옥 외. 2008.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파주:한울아카데미.
- 김동리. 2005. 『김동리 단편선-한국문학전집 13』. 서울:문학과학지성사.
- 김영남. 2015. “외손자의 눈으로 본 흥남철수 주역 아몬드 장군.” 『워싱턴중앙일보』(2월 12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1250](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1250) (검색일: 2018.12.8).
- 김행복. 2005. “연구보고서-흥남철수작전.” 서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문창재. 2010. 『바다만 아는 6.25 전쟁 비화 증언』. 서울:일진사.
- 부산일보사. 1984. 『임시수도 천일 下』. 부산:부산일보사.
- 서경석. 2000. 『전장 감각』. 서울:샘터.
- 서울신문. “흥남철수 미션원 ‘피난민들, 질서정연하게 승선, 거제서 배에 절하고 내려’.” 『서울신문』(2017년 6월 13일).
- 신동아. “흥남철수작전의 숨은 영웅 김백일 장군.” 『신동아 695호』(2017년 8월 13일), 374-385.
- 양영조. 2001. “피란민 정책.” 군사편찬연구원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53-328. 서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안재철. 2008. 『생명의 항해』. 서울:자운각. “역사채널e-희망의 크리스마스 항해 흥남 철수작전.” <http://www.youtube.com/watch?v=QQ4IvyJWSU0&sns=em> (검색일: 2018. 9.20).
- 오진근·임성채. 2006. 『손원일 제독 下』. 서울: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윤택림. 2003.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서울:역사비평사.
- 정일권. 1986. 『전쟁과 휴전』. 서울:동아일보사.
- 조영주. 2013.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과 인민 되기.” 이재경·윤택림·조영수 외 편,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131-164. 홍천:아르케.

- 중앙일보사. 1983. 『민족의 증언 4』. 서울:중앙일보사.
- 채한국 · 정석균 · 손문식. 1996. 『한국전쟁(中)』. 서울:국방군사연구소.
- 한국구술사학회 편. 2011. 『구술사로 읽은 한국전쟁』. 서울:휴머니스트.
- 함명수. 2007. 『바다로 세계로(함명수제독 회고록)』. 서울: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현봉학. 2017. 『현봉학』. 성남:북코리아.
- 홍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편찬위원회 편. 2016. 『아! 홍남철수』. 서울:(사)홍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
- Appleman, Roy E.. 1990. *Escaping the Trap: the US Army X Corps in Northeast Korea, 1950*. TX: Texas A&M University press.
- Gilbert, Bill. 2000. *Ship of Miracles*. Chicago, IL:Triumph.
- \_\_\_\_\_. 류광현 역. 2015. 『기적의 배』. 서울:비봉출판사.
- Gramsci, Antonio.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trans. & eds.,. 1999. *Selection form the Prison Notebooks*. NY: International Publishers.
- Martin Russ. 임상균 역. 2004. 『브레이크아웃 : 1950 겨울, 장진호 전투』. 서울:나남 출판.
- Paul Thompson. 2000.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ip of Miracle - In Search of Brother Marinus.” <http://www.shipofmiracles.com/> (검색일: 2018. 9.20).
- Stanley Weintraub. 송승중 역. 2015. 『장진호전투와 홍남철수작전』. 성남:북코리아.
- Stewart, Richard W.. 1991. *Staff Operations: The X Corps in Korea, December 1950*. Fort Leavenworth: Combat Studies Institute press.

조진수 · 김석향, 홍남철수작전의 재구성: 아비규환과 질서정연 사이의 진실 재조명  
(투고일: 2018.12.16, 심사일: 2018.12.28, 게재확정일: 2019.1.28)



